

여름 축제

# 속리산 야행(夜行): 도깨비와 걷는 숲

"천년의 숲, 깨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깨어났다"



개최 시기

2026.6.27 ~ 7.12

16일간



장소

속리산 일원

오리숲, 세조길



예상 방문객

일 5,000명

총 8만명



핵심 가치

야간 관광

청년 유입, 친환경

## 2.1 기획 의도 및 컨셉

K-Horror와 Eco-Cooling의 결합

여름철 보은은 뜨겁지만, 해가 진 속리산의 숲은 서늘하다. 본 제안은 이 '**자연의 냉기**'를 '**심리적 냉기(공포)**'로 전환하여 무더위를 잊게 만드는 역발상 전략이다.

### 축제 명칭 (가칭)

2026 속리산 쿨(Cool) & 칠(Chill) 페스티벌:  
도깨비의 초대

### 슬로건

"천년의 숲,  
깨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깨어났다."

## 2.2.1 [Night] 킬러 콘텐츠: 오리숲 호러 트레킹

'도깨비의 금기(Taboo)' - 국내 유일의 국립공원 호러 트레킹

### 시나리오

"과거 속리산에는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영혼을 가져가는 도깨비가 살았다. 봉인되었던 도깨비가 2026년 여름, 다시 깨어났다. 당신은 숲속에 흩어진 5개의 '봉인 부적(대추나무 조각)'을 찾아 도깨비를 다시 잠재워야 한다."

### 연출 및 운영 전략



### 자연 지형 활용

#### 속리산축제 2026

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, 숲의 나무, 바위, 다리 밑을 활용하여 귀신(언기자)이 등장. 조망은 깊은 암파 푸른색 LED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숲의 원초적인 어둠을 강조.

### 청각적 공포 극대화

홀 배경 여름축제 겨울축제 인프라 실현가능성 마케팅 기대효과  
숲속 곳곳에 시향성 스피커를 설치하여 바람 소리, 아이 웃음소리,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등 ASMR 경대의 공포 사운드 스크립트. 시각적 자극보다 더 깊은 심리적 공포 유발.



### 인터랙티브 미션

도깨비와의 씨름(팔씨름), 수수께끼 풀기 등 설화 기반의 미션을 수행해야 통과할 수 있는 관문 설치. 단순 관람이 아닌 참여형 콘텐츠로서 몰입도 극대화.



### 안전 관리

어두운 숲길임을 감안하여 야광 유도선을 설치하고, 구간마다 안전요원을 '저승사자' 복장으로 배치하여 컨셉을 해치지 않으면서 안전 확보. 사전 예약제로 시간당 입장 인원 제한.

## 2.2.2 액티비티 콘텐츠: 속리산 워터밤

'대추나무 물총 전쟁' - 낮 시간대 가족 단위 물놀이

### ❶ 대추 수호 대작전

참가자들을 '대추 수호대'와 '도깨비 군단'으로 나누어 대규모 물총싸움 진행.

대장(진행자)의 조끼에 달린 대추 모형이 물에 젖어 색이 변하면 패배하는 방식.

### ❷ 친환경 물놀이

☑ 인근 저수지의 물을 정수하여 사용

☑ 화학 약품 사용 배제

☑ 축제 종료 후 자연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리

### ❸ 쿨링 포그 & 레인 존

### ❹ 장소

## 2.2.3 힐링 콘텐츠: 계곡 에코 피크닉

'신선놀음' - 건전한 피서 문화 제안



### 프라이빗 피크닉 존

보은군에서 공식적으로 파라솔과 듯자리, 캠핑 의자를 대여해주는 '피크닉 패키지' 운영.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여 과밀 방지.



### 보은 대추 도시락

지역 식당과 협업하여 '대추 닭강정', '산채 주먹밥', '대추 식혜' 등으로 구성된 도시락 제공. 다휘 용기 사용으로 쓰레기 저감.



### 어쿠스틱 버스킹

과도한 소음이 아닌, 자연과 어우러지는 어쿠스틱 밴드나 핸드팬 연주 등을 소규모로 진행하여 힐링 분위기 조성.

#### 📍 장소

서원계곡 및 만수계곡 지정 구역

## 2.3 차별화 전략 및 기대 효과



### 차별화

기존 테마파크의 인공적인 호러와 달리, 유네스코 유산의 숲이라는 '압도적인 리얼리티' 제공



### 타겟 확장

호러 콘텐츠로 MZ세대 유입, 물놀이·피크닉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 유지하는 '투 트랙' 전략



### 경제 효과

야간 콘텐츠 도입 → 숙박 수요 창출 → 체류형 관광객 증대 및 야간 상권 활성화

#### 2026 속리산축제 콘텐츠 공모전 제안서

제2장: 여름 축제 - 속리산 야행(夜行): 도깨비와 걷는 숲